

새터反성폭력내규 개정을 위한 토론회

일시 : 2005년 9월 7일 수요일 6시 30분

장소 : 공대 A012호

- 내안에 차오르는 여성주의 물결 움.펼.름 17대 총여학생회 -

토론회 순서

1. 새터내규 개정의 의미 : 별 (17대 중여학생회)

2. 대학 내 공동체를 위한 성평등 자치규약 : 고래 (17대 중여학생회)

.....질의응답.....

3. 공동체 내 언어성폭력, 그 일상성을 살펴보다 : 최예경 (공대 학생회)

4. 대학내 공동체문화에 대하여 : 씬 (이과대 학생회)

5. 학내 반성폭력 운동과 자치규약의 의미 : 틀레 (17대 중여학생회)

.....질의응답.....

대학 내 공동체를 위한 성평등 자치규약

발제자 : 별(17대 총학생회)

새터 反성폭력 내규(이하 새터 내규)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자유롭지 못한 대학 문화를 기반으로 일어나는 성차별/성폭력적인 상황을 좀더 올바른 방향으로 고쳐나가기 위해 2000년 2월 9일, 학생들에 의해 자치적으로 제정되었다. 특히 많은 술자리가 마련되고 '친해지기 위해서'라는 명목 아래 성폭력적인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학생들이 처음 만나는 OT/새터 기간에 중점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 실제로 새터 내규는 많은 학생들에게 성폭력의 개념을 설명해주었고 '폭력적인 일상'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었다. 내규는 자치 규약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가질 수 없고 이에 따라 실제 성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처리는 反성폭력 학칙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문제제기는 내규의 힘을 받아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너무나 일상적이지만 분명히 내규에서 '성폭력'으로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자가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새터 내규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았다. 너무나 일상적인 것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심기가 불편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그만큼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시각이 일상적이라는 것이다. 자신의 일상을 돌아볼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지적하는 걸 귀찮아하거나 기분 나빠하는 것은 공동체 문화에서 상당히 이기적이고 몰상식한 행위이다. 내규는 결코 '콜라 먹지 말고 사이다 먹어'와 같은 문제가 아니다. 공동체에서 누군가를 배제하고 폭력적으로 대할 수 있는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 적어도 없어야 한다. 하지만 성별 권력관계에서 자유롭지 않은 대학 공동체에서 기득권은 이성애자 남성들이 쥐고 있다. 그들은 '우린 콜라를 좋아할 뿐이야'와 같은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문제는 그 콜라가 단순한 콜라가 아니라 '남성중심적인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않으려는' 사람들을 죽이는 콜라라는 것이다.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면서까지 콜라를 마시는 것,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시기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처럼 일상적인 것을 지적하며 보다 평등하고 모두에게 자유로운 대학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제정된 새터 내규였으나, 한계성도 가지고 있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내규에 명시된 여러 구체적인 예는 많은 맥락이 삭제된 채 '행위성'만 남았다. 기존 내규에서 예로 제시된, 여성에게 술자리의 분위기를 위한 서비스를 강요하는 언행인 "아, 여자 후배들 좀 사이사이에 앉혀봐" 같은 경우 이 말에 담긴 함의가 어떤 것인지,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언행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저 말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금지조항'식으로. 또, OT/새터는 대학 문화의 일면일 뿐이고 술자리는 학교 다니는 내내 일상적으로 마련되며 성폭력적인 언행 또한 평소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내규의 적용 시기와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었다. 궁극적으로, 남성중심적인 대학 문화가 바뀌지 않는 이상 성폭력은 근절되지 않는다. 바로 남성중심적 문화가 여성에 대한 일상적인 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기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공동체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구성원 스스로의 가부장성과 성별 권력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아울러 일상에 스며있는 이성애중심주의와 학번권력, 나이권력 등 공동체 안에서 형성되는 또 다른 부당한 권력관계를 돌아봐야 한다.

자치 규약 개정안은 OT/새터에 국한되지 않으며, 대동제, 농활, 연고제 등 모든 과/반/동아리의 활동과 생활 반경 안에서 적용된다. 보다 효율적이고 폭 넓은 문제제기를 위해 술자

리/놀이자리 등 애매했던 카테고리를 없앴다. 실제 있었던 일이나 구체적인 언행을 사례로 제시하는 대신 '왜곡된 성의식을 가지고 개인의 성적 경험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나 '술자리에서 자신의 성구매 경험을 이야기하는 경우' 등 일상적으로 마주치게 되는 상황들을 짚어 냈다. 아울러 이성애중심주의와 나이/학번권력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구체적인 실천조항을 제시했다. 또한 자치규약 개정안에서는 문제 제기의 범위가 대학 내의 전반적인 가부장적 문화로 넓어졌기 때문에 성평등 자치규약이라고 명명했다. 기존의 反성폭력 운동에 대해 새로운 전환점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더 섬세하게 反성폭력에 대한 담론을 풀어내려고 노력했다. 개정된 자치규약을 통해 학내 공간의 모든 성폭력과 성별 권력관계가 사라져서 보다 평화롭고 즐거운 대학 문화가 형성되길 바란다.

대학 내 공동체를 위한 성평등 자치규약

1. 목적

대학 사회는 기존의 사회에서 분리될 수 없다. 이에 따라 기존 가부장제 사회에서 작동하는 이데올로기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성별 권력관계, 이성애중심주의, 권위주의 등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사람들 간의 관계맺음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작동된다. 이는 대학 공동체에서 부당한 차별과 억압을 재생산해내고 이로 인해 소외되는 사람들을 만들어 낸다.

대학 내 공동체의 이런 남성중심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꾸준히 있어왔으나 공동체 구성원들의 성찰은 여전히 매우 미약하다. 이는 섹터, 대동제, 농활, 연고제 등 과/반/동아리의 활동과 생활 반경 안에서 수많은 성폭력을 양산해낸다. 대학 내 공동체의 성평등을 저해하는 가장 큰 기제는 이러한 일상적인 성폭력이다. 따라서 본 자치규약은 성평등을 위한 실천방안과 함께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두었다.

대학 내 공동체를 위한 성평등 자치규약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구성원들의 감수성을 키우고 공동체의 남성중심성을 해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성별/성정체성/성적 지향에 관계없이 평등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그 의의가 있다.

2. 성폭력의 예방과 사건 해결

2-1. 성폭력의 개념

광의의 성폭력(Gender-based Violence)은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인 성격을 띤 언어적, 정신적, 신체적 행위 및 요구, 그리고 성별에 기반한 차별적 행위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즉 성적인 폭력 (Sexual Violence)으로 알려진 성적인 신체접촉 및 언어폭력 뿐 아니라 위협적이거나 적대적인 상황의 조성, 특정 성의 취약한 부분을 노린 폭력까지 포함한다. 이는 사회 전반의 남성중심적인 일상이 여성에 대한 폭력과 맞닿아있다는 함의를 가지고 있다.

성폭력은 사건 발생 시의 상황과 개별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 갖게 되는 의미, 그리고 사건 해결의 방향에 따라 다른 명명으로 논의되기도 한다. 공동체 내에서 특정 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지적하는 성차별이나 직장, 공공단체, 학교 등의 단체생활에서 성적 언행이나 성차별 유발 등으로 노동권, 교육권, 학습권 등의 기본적인 권리 침해가 일어나는 상황을 법적으로 다루는 성희롱이 그 예이다. 이러한 명명은 성폭력 사건을 어떤 측면에서 해결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며, 이 때 중요한 것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맥락과 피해 상황, 그리고 그 사건을 바라보는 공동체의 시각이다. 본 자치규약에서는 광의의 성폭력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성폭력을 지적하고 이를 예방하고자 한다.

○ 성폭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공동체 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성폭력을 구체적인 사례로 짚어본다면 아래와 같다.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시도하거나 요구하는 언어 및 행위

- 상대방의 몸을 훑어보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응시하여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동
- 놀이 자리에서 특정 성을 대상화하거나 배제하는 것
- 예) 성적으로 불쾌한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나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노래를 부르는 경우
- 술자리에서 자신의 성구매 경험을 이야기하는 경우
-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가지고 성폭력 가해를 정당화하는 언어 및 행위
- 예) 여성의 노출 복장이 성폭력을 유발한다고 말하는 경우
- 특정 성의 공간을 침해하여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동
- 예) 다른 성의 화장실이나 탈의실을 엿보거나 침입한 경우
- 성적 불쾌감을 주는 육체적, 언어적 표현
- 예)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경우
-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성행위 묘사
- 음담패설이나 왜곡된 성의식에 기반한 성적 농담 및 욕설
- 왜곡된 성의식을 가지고 개인의 성적 경험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
- 특정 성에게 적대적이거나 불편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 예) 공동의 공간에 성적으로 불쾌감을 일으키는 문구, 사진, 그림 등을 부착하는 행위
- 온라인 커뮤니티에 특정 성을 배제하거나 성적으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
- 성별 권력을 이용하여 특정 성에게 신체적 폭력이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
- 특정 성에게 술자리의 분위기를 위한 서비스를 강요하는 행위
- 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까이 앉아 술을 따르게 하거나 술을 마시게 하는 경우
- 성적 고정관념 및 편견에 의한 차별적인 언행
- 예) 성역할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에 의해 일의 분업이 강요되는 경우
- 성적인 의미를 담은 행위를 요구하거나 표현하여 불쾌감을 주는 행위
- 예) FM 및 각종 게임의 에로틱 버전을 요구하는 경우
- 남학생들을 왜곡된 여성의 모습으로 여장하게 하고 성적으로 대상화해서 심사하는 경우

○ 2차 가해

2차 가해는 성폭력, 혹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사회적으로 왜곡된 통념을 적용시켜 성폭력 피해자에게 정신적,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주게 되는 행위를 말한다.

- 성폭력 사건 자체를 부정하거나 은폐시키는 경우
- 가해자와의 친분 등을 근거로 가해자를 옹호하는 경우
-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건을 유포하는 경우
- 피해자에게 사건의 책임을 돌리는 경우

2-2. 이성애 중심주의

이성애 중심주의란 모든 사람은 이성애자이며 반드시 이성애자여야 한다는 독단 아래 오직 이성애만을 정상적인 것, 올바른 것이라 여기는 가부장적 통념이다. 이성애 중심적 폭력은 이성애 외의 경향이 있는 개인과 공동체를 비난하고 주변화 시킴으로써 성적 다양성을 억압한다. 또한 이성애 중심주의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에 따라 특정 성 역할을 강요하면서 남성 우월의 성별 권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그러나 누구도 단일한 성 정체성

을 강요할 수 없으며 특정 성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성 역할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체성과 성적 지향은 매우 다양하며, 비이성애자를 비롯하여 전형적인 여성과 남성의 틀에 갇히지 않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성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개개인 모두가 이러한 성적 다양성 속에 있다. 우리는 당연히되어 왔던 이성애 중심적 풍토를 낫설게 보는 연습과 기존의 이성애 중심적 언행들을 성찰을 통해 보다 성평등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동성애 혐오증에 기반하여 욕설 및 조롱이 담긴 발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성 정체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이성애 중심적 커플 문화를 강요하지 않는다.

-비이성애자의 성적 지향을 무시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치부하지 않는다.

2-3. 학번권력과 나이권력

여전히 공동체 내부에서 학번의 높고 낮음을 이용해 언어적/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학번 및 나이 권력, 성별 권력을 통해 성폭력적인 놀이문화를 강요하는 경우도 많다. 학번 권력 및 나이 권력은 공동체 내부의 수평적인 관계 맺음은 물론이고 성평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학내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은 학번 및 나이와 무관하게 본 자치규약을 숙지하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

- 학번의 높고 낮음을 이용해 규약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 규약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문제 제기된 경우 학번이나 성별 권력을 이용하여 이에 폭력적으로 대항해서는 안 된다.

4. 적용 대상

본 자치규약은 학내의 과/반 학생회, 동아리, 학회, 소모임, 동문회 등 모든 자치 단위 공동체의 구성원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5. 의무

- 학내 모든 공동체에서는 각종 행사 및 모임 자리에서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 발생 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새터, 농활, 대동제 등 학내 공동체 행사를 주최하는 학생회는 성폭력 사건 해결 주체 교양을 이수해야 하고, 전화와 이메일 등 다양한 사건 접수 통로를 마련하여 이를 공고해야 한다.

- 각 학생회는 새터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 자치규약에 대한 교양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본 자치규약을 논의하는 모임에서 제작한 자료집과 포스터를 배포해야 한다.

- 각 학생회는 농활과 대동제 기간 2주전부터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본 자치규약을 소속 단위의 학생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6. 사건의 처리

- 학내에서 일어난 모든 성폭력 사건은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反성폭력 학칙)에 의거하여 성폭력 상담실에 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식적 처리나 비공식적 처리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 성폭력 상담실에 신고한 경우에도 각 학생회는 사건을 지원하고 사건에 대한 공동체 내부의 논의를 책임 있게 이끌어갈 의무가 있다.

- 피해자가 학칙에 의거한 해결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학생회는 성폭력 상담실과 총여학생회의 자문을 받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7. 개정

개정 안건의 상정과 의결은 확대운영위원회의 회칙에 따른다.

제정 : 2000.2.9

1차 개정 : 2003.1.28

공동체 내 언어성폭력, 그 일상성을 살펴보다

발제자 : 최예경 (공대 학생회)

지난 2월, 새내기들을 처음 맞이하는 OT, 새터에서 반성폭력 내규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에 선 적이 있다. 처음 무대에 올라왔을 때, 대학에 처음 들어와 들뜬 마음에서인지 새내기들은 초롱초롱한 눈빛의 호기심이 가득한 얼굴이었다. 설명이 시작되었다. “성폭력은 동의 없이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인 성격을 띤 언어적, 정신적, 신체적 행위 및 요구, 그리고 성별에 기반한 차별적 행위를 뜻한다.”는 성폭력의 개념과 범위로 이야기를 꺼냈고 새내기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고등학교 때 성교육이나 일반 사회 과목 등을 통해서 배워온 것들이니 어쩌면 내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에 그쳤으리라. 그러나 개념 설명 이후 여러 가지 성폭력에 관한 사례를 들자, 새내기들은 점점 의심과 반문이 섞인 심각한 표정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특히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에서 성폭력에 대해 문제제기 할 때는 여러 가지 혼란으로 뒤죽박죽 되어있는 것 같았다.

이처럼 언어 성폭력에 대한 실제적인 문제제기를 했을 때 그에 대한 반발은 엄청나다. 굳이 이렇게 딱딱한 강연 자리가 아니라, 평소에 누군가와 이야기하다가 성폭력적인 언사라고 느꼈을 때 반문을 하면 더더욱 상대방의 반발은 커진다. 그 엄청나고 수많은 반발의 이유들을 살펴보자면 대개 사람들이 언어가 가지는 비가시성, 일상성 때문에 언어 성폭력을 상대적으로 ‘가벼운 폭력’으로 인지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언어성폭력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며, 오히려 더욱 중대한 문제이다.

사람들의 성폭력에 대한 이미지는 대개 강간, 성추행 등의 신체적 폭력에만 머물러 있다. 따라서 언어성폭력은 물리적 성폭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가시화된다는 점에서 그 무게가 낮게 받아들여진다. 예를 들어 몇몇 학우가 과방에 들어오면서 방금까지 했던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그 중 A라는 학생이 소위 ‘아이템’을 뺏겼다는 의미로 “아, 나 강간당했었다니깐.”이라는 표현을 썼다면, 당신은 이 표현이 성폭력으로서 얼마만큼의 강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 학우가 단순히 “강탈”을 강조하기 위해서 강간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항변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강간”이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폭력 -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남성’이 ‘여성’에게 성별권력을 전제로 행사하는 성폭력이다 - 의 의미에서 강간하는 사람과 강간당하는 사람간의 성별권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관계구성은, 강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회색시킬 수 없는 요소이다. 이러한 폭력의 가장 직접적 표현에서 느껴지는 성적 불쾌감은 그 발언의 이면에 담겨진 남성 중심적인 사고와 더불어 불쾌감을 제대로 표현 못하는 상황이 차곡차곡 겹쳐지면 정신적 충격의 무게는 더더욱 가중되게 마련이며, 이는 물리적 성폭력에 버금가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언어 성폭력은 말로 표현되는, 가장 일상적인 형태의 성폭력이다. 가장 일상적이기에 개개의 언어 성폭력은 그 무게감이 줄어들어, 문제의식을 느끼더라도 그냥 항상 일어나는 일이니 별 일 아닌 것으로 치부, 그러려니하고 넘어가는 수준에 그치고 만다. 그러나 이 ‘그러려니’는 여성이 일상에서 느꼈던 수많은 경험들을 배제, 은폐시켰던 일들이고, 따라서 지금껏 사회와 사람들의 의식 속에 뿌리 박힌 폭력성을 끊임없이 양산시킨 근본이다. 위의 예에서도, 앞서 말한 바와 같이 A의 발언은 A의 의식에 은근히 존재하는 가부장성, 남성중

심적 사고관, 여성 억압적 사고관을 습관적으로 표현한 결과이다. 이러한 가부장적 사고는 끊임없이 또다른 언어 성폭력을 낳게 된다. 언어 성폭력은 무한히,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폭력이기에 더욱 중대한 일이다.

특히나 공동체 내 언어 성폭력에는 성폭력이 전제하는 성별 권력 관계에 나이 권력, 학번 권력이 가중되어 문제가 더욱 복잡하게 된다. 위의 A라는 학생이 학번과 나이로 선배이자, 남학생이고, A의 얘기를 들던 학생들은 후배들이라고 설정해보자. A의 후배들이 A의 발언으로 인해 성폭력적 불쾌감을 느꼈을 때 그들은 그 불쾌감을 쉽게 표현할 수 있을까? 특히 여자 후배라면?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을 때 예민한 사람, 평화를 깨는 사람으로 낙인 찍힐 상황에서, 특히나 선배에 대한 무례를 우려했을 때 어느 누가 적극적으로 항의할 수 있을까. 결국 그들이 느낀 불쾌감과 성폭력에 대한 지적은 그들의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이런 암묵적 허용은 점점 더 심각한 언어 성폭력을 허용, 심지어 이 발언을 단지 유머로 받아들이고 그것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 후배의 경우, 선배의 경험과 언어를 자신의 것으로 체화시켜 똑같은 표현을 사용하게 될 수 있다. 가끔 반성폭력 내규가 공동체 문화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반학생회나 동아리의 경우 고학번 선배들이 성폭력적인 발언들을 할 땐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다고 고민을 털어놓는 것을 볼 때면 학번권력, 나이권력이 얼마나 성폭력 문제와 연관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굳이 공격적인 성폭력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서라도 매순간 남성중심적, 이성애 중심적 시선이 담긴 발언들은 여성을 포함한 성소수자들의 경험과 언어를 끊임없이 규제시키고 배제시켜왔다. 대화 중에 습관적으로 나오는 성적인 욕설들, 게임, 축구, 군대 등 여성의 경험이 배제된 이야기들로만 대화가 채워지는 과방, 미팅에 나갔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대방을 외모로만 평가했던 술한 말들, 동성애자를 폄하하는 발언. 이런 것들 속에서 여학우들과 성소수자들은 공동체에서 소외되었다.

언어 성폭력에 대해서는 이미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명시해놓았고, 문제제기 또한 수없이 나왔다. 그러나 반성폭력 내규를 개정하는 이 시점에서 언어 성폭력을 다시 강조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일상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문제이기에 그렇다. 언어 성폭력은 바로 언어로써 해결할 수 있다. 성적 괴롭힘을 느꼈을 때 적극적으로 성폭력적 지점을 짚어내며 항의할 수 있어야 하며 지금까지 묻혀있던 수없이 많은 사례를 고집어내야만, 경험을 이야기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또한 다른 성의 경험을 듣고,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가부장성을 깨뜨리려는 태도, 이것이 언어 성폭력 뿐 아니라 모든 성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대학내 공동체문화에 대하여

발신자 : 씬 (이과대 학생회)

- 들어가며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 서로 다른 사람과 각기 다른 관계를 맺으며 이러한 관계 속에서 삶을 형성해 나간다.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인간의 삶에서 다른 사람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가?'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며,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은 행복한 삶의 필수 조건이다.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생활하는 대학생에게도 관계란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반, 동아리, 학회 등의 외부 사회와는 조금 다른 긴밀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대학생에게 있어서 이러한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가 대학에서 접하게 되는 관계 맺기의 방식은 남성중심적인 관계, 이성애 중심적 관계, 나이권력·학번권력에 따른 관계등 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관계를 폭력적, 수직적으로 만들게 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다.

새터 내규를 개정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공동체 내부 안에서 각자가 맺게 되는 관계의 모습을 냉철하게 판단하여, 그 안에 존재하는 관계의 폭력적 요소들을 탐지해 보다 비폭력적이고 평등한 관계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1)강요된 적극적 드러내기와 유머

-어느 신입생의 새터

"오늘은 새터 첫째 날이다. 선배들 친구들에게 어떤 첫인상을 남겨야할지 걱정이 된다. 오리엔테이션 때 FM을 잘하던 친구의 이름은 벌써 모든 사람이 외우고 있다. 나도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싶다. 하지만 난 목소리도 크지 않고 개인기도 없다. 다른 친구들에 비해 위축되는 것 같기도 하고, 소극적인 사람으로 낙인찍힐까봐 두렵다. 친구들을 쉽게 사귀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대학에 오면 마냥 즐거울 줄 알았는데 첫 만남부터 부담이 된다."

매년 2월 신입생들은 오리엔테이션과 새터를 통해 선배, 동기 등 대학안의 공동체 구성원들과 첫 만남을 하며 이것을 시작으로 관계를 형성한다.

첫 만남에서 신입생들에게 가장 고민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드러내기'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드러내기'의 과정을 유심히 살펴보면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신입생들이 자신을 드러낼 때는 적극성을 강요받는다. 자기 자신의 이름을 큰소리로 말해야 자신을 알릴 수 있을 것이라는 스스로의 생각과 암묵적으로 강요된 분위기속에서 군대의 관동성명과 같은 FM을 하게 되며 이목을 끌기 위한 개인기를 요구받는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적극성을 권장하는 분위기 안에서 신입생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소개를 받는 상대방과의 앞으로의 관계에 있어서, 삶의 일부분을 함께 만들어가는 데에 필요한 나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 해주는 것이 자기소개서의 역할이라고 하면 적극성이라는 말이 일면 타당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의 자기소개 문화의 실상은 이러한 측면에서의 '적극성'과는 거리가 있다. 우리의 자기소개는 나 자신을 상대방에게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한 행위라기보다는 상대방이 보기를 원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나 스스로를 '유용한 가쉽거리'로 만드는- 행위가 된다.

또한 자기소개가 진행되는 과정은 선택적 배제 속에서 이루어진다. 자기소개를 하면서 신

입생들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얼굴이나 몸매에 대한 평가를 받고 목소리, 말투 등 '보여지는' 것들 전반에 대해 '평가'를 받는다. 모든 사람의 이목이 한사람에게 집중되면서 보여지는 것들은 소개받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별화된 고정관념에 의해 분석된다. 사회적으로 일컬어지는 잘 생긴 또는 예쁜 얼굴, 여성스러움, 남성스러움, 세련된 말투, 날씬한 몸매 등의 것들은 그 사람이 자신 있게 자신을 내비출 수 있도록 하는 자원이 되고, 이러한 자원을 갖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 희화화되는 과정을 통해야만 사람들에게 첫인상을 심어 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자기소개 과정을 거치면서 구성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진솔함과 별개인 자원의 획득 유무를 기준으로 관계를 맺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첫인상은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신입생들이 신고식 형태로 강요받는 개인기의 대부분은 성적인 농담이나, 유행 따라하기 등이 되는데 목소리가 작은 사람, 사람들이 좋아하는 유머코드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공동체로부터 배제되는 느낌을 받게 된다. 이때의 유머는 대부분 소위 말해지는 남성적임(정력(?)적임, 야한, 과격함) 또는 여성적임을 소재로 한 유머와 호모포비아적인 요소들로 이루어진 유머 등이 중심을 이룬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남성적, 여성적 자원들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개인기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신입생들은 성별화된 역할의 구분이 명확한 관계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또한 여성스러움이라는 자원을 사용할 수 없는 여성의 경우 명예남성화 되는 것을 통해 유머코드에 부합하기를 요구받는다("누구누구가 여자냐? 남자지 하하하~"). 비이성애의 성정체성이 유머의 코드로 자리매김한 공간에서 비이성애자는 공동체로부터의 배제를 경험하게 되며, 이를 통해 관계맺음을 한 구성원들은 공동체가 이성애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을 확고히 하게 된다.

이렇듯 자기소개와 '쇼'로 이루어진 개인기숙의 유머의 모습은 정형화된 성차별적 고정관념에 있다. 결국 공동체 구성원들은 '어떤 면에서 자원이 부족한' 서로를 배제하는 문화에 익숙해지며, 권력화 된 -동등하지 못한- 관계를 맺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게 된다.

(2) 놀이 문화를 통한 관계 맺음

오리엔테이션기간동안 공동체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은 술을 마시면서 이루어지는 놀이를 통해 채워지게 된다. 처음만난 사람들끼리 놀이를 통해 편하게 서로를 알아가게 해준다는 의미로 여러 가지 '대학교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놀이들이 선배로부터 후배로 대물림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진행되는 술자리 문화 놀이문화를 통해서도 관계형성의 많은 부분이 녹아들어가게 된다.

게임의 대부분은 술을 먹이기 위한 행위로서 진행된다. 베스킨라빈스31, 더게임오브데스 등등 개인에 대한 아무런 정보나 행동 없이 술 마시는 것을 과정과 목표로 하는 게임이 대부분이며, 이러한 방식으로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알아간다는 본연의 관계맺음의 중요한 과정은 빠진 채, '술에 취하는 것'을 통해서만 관계가 형성된다. 이때 유념해야 할 것은 술에 취하는 행위에도 성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흔히 뽀얏다고 표현되는 상태가 될 때 '잘 논다, 적극적이다.'라는 평가를 내리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하지만 남성과 달리 여성의 경우 '여자가 조신하지 못하다'등의 추가적 평가를 받게 되는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술자리로 구성되는 관계의 친밀함의 상당한 부분에서 여성들은 제외되기 십상이다.

서로를 알아간다는 명목하에 받아들여지는 게임 중 대표적인 것이 '진실게임'이다. 일정 확률로 지적당해 각자의 삶의 경험을 말하게 되는 이 게임 안에서 실상은 대부분 '성경험'

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된다. 이러한 게임을 통해서 맺어지는 관계는 각자의 경험에 대한 진솔한 대화를 통해 한사람의 인생을 적극적으로 이해하려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기여하지 못하며, 성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개인의 성경험을 가임 거리로써 받아들이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개인의 성적경험이 가임 거리가 되는 과정 속에서도 성별 분화를 볼 수 있는데 남성의 성적경험은 소위 '남성성'을 확고히 하는 역할을 하는 한편 여성의 성적경험은 여전히도 잔존하는 '순결이데올로기'안에서 여성에 대한 폄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언어적 성폭력의 경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게임을 통해 친해지고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부터 배제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또한 상당수의 게임들이 여/남간의 신체 접촉을 매개로하여 '아름다운'분위기를 연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게임들은 성폭력을 유발하여 피해자의 공동체 이탈을 일으키기도 한다.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폭력성을 없애기 위해 진솔한 대화를 유도하는 게임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3)관계속의 권력

자기소개를 할 때 주로 '몇 학번 누구누구입니다. 어디어디서 왔구요, 몇 살입니다.(또는 재수여부나 조졸여부를 확인)'등으로 자신의 출신지역과 나이, 학번을 통해 자신을 소개한다. 이는 관계의 형성이 지연, 학연, 혈연, 나이 등으로 관계가 형성되는 우리사회의 잘못된 문화를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관계형성의 첫걸음이 자신 스스로의 삶의 경험이 아닌 첫 배경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우리의 관계맺음의 빈약함을 드러낸다.

출신지를 말하는 과정에서 종종 '청담동에서 왔고요..', '강남살구요..'등의 소개가 이루어진다. 마치 모든 사람이 서울의 구·동에 대한 정보를 모두 아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해지는 과정은 '서울연고 중심성'의 결과이다. 또한 지역별 소득 격차가 극심한 우리나라의 실상에서 출신지 중심의 자기소개는 소득격차를 드러내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관계형성에서 나이를 매우 중요시하는 풍조가 만연한다. 매년 불거지는 조기졸업한 고학번과 재수한 저학번사이의 호칭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이러한 문화가 낳은 결과이다. 나이를 동해서 권력관계를 형성하고 이러한 관계를 호칭으로써 견고히 하는 행위들은 관계맺음을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 관계로 만드는 작용을 한다.

관계맺음에 있어서의 권력차이는 이뿐만이 아니다. 성별적으로도 다른 권력 관계가 형성된다. '선배'라는 호칭에서는 동등하지만 '누나'와 '오빠'라는 호칭에서는 성별적으로 다른 위계관계가 형성되는 경험을 누구나 한번쯤 해보았을 것이다. 공동체 내부에서 은연중에 정해진 성역할의 구분이라는 성차별적 상황 속에서 여자선배는 뒤에서 보살핌노동을 하는 존재, 남자선배는 앞에서 이끄는 존재로 위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고학번 여자 선배들이 부재할 수밖에 없었던 현 대학 공동체의 현실에서 여자 후배들은 롤 모델을 찾기 힘들어지며, 새터를 통해 남자 선배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과반문화에 익숙해진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자후배에게 여자선배는 쉬운 대상이 되고 여자후배에게 남자선배가 어려운 대상이 되게끔 하는 권력관계가 형성된다. 이러한 권력관계의 형성은 공동체 내의 남성 중심성을 견고히 하는 결과를 낳는다.

(4)공간을 통해본 관계

새터를 준비할 때 반드시 여/남의 공간을 분리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각 단위마다 4개 정도의 방을 마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렇게 공간의 활용이 충분히 보장 될 때도 방의 구분은 '술먹는 방', '조용히 이야기하는 방', '자는 방'으로 성별구분이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새터에서의 관계 형성 방법 중의 하나가 밀집된 공간에서의 집단생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한 공간에 모두같이'라는 집단주의 성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난 결과이다. 하지만 공동체의식이라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들이 동일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의미를 공동체에 투영할 때 생기는 것이지 생활범위를 강제함으로써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남녀 구분 없이 모두 한 공간에서'라는 의식은 오히려 개개인의 성적 정체성 안에서 공간이 갖는 의미를 무시하는 것이다. 여/남의 공간분리의 원칙은 '여/남이 분리되고 다르게 대우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이 동일한 경험과 동일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현 상황에서 분리의 필요성을 느낄 때 그 요구를 보장해 주기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생리중인 여학우가 있을 때를 생각해 보면, 남학우의 경우 그러한 경험을 동일하게 하고 있지 않으며, 여성의 생리현상이 "말해서는 안될 것"이 되는 성폭력적 분위기 안에서 미리 공간이 분리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생리중'임을 밝히고 공간분리를 요구하기 힘들다. 결국 개인의 상황에 따라 공간 분리를 보장받아야함에도 그렇지 못하게 된 것이다.

공간 분리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은 대부분 공동체 내부에서의 고민부족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새터 내규가 획화되기 쉬운 상황, 단위별로 내규교양이 원칙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공간분리를 비롯한 실제적 사항들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실천하지 않는다. 특히 단위 내에서 많은 경험적 자원을 가진 선배들의 고민이 부족할 때 -또는 물이해를 가지고 있을 때- 내규의 내용은 지킬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식될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새터 등의 단체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동체 내부의 교양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한다. 단순히 내규 훑어보기 식이 아니라 내규의 각 사항에 대해서 공동체안의 구성원들이 개인적으로 숙지하고 동의할 수 있을 정도로 활발하게 내부논의가 되어야하는 것이다.

대외적으로 합의된 원칙에 공동체 구성원이 모두 재합의를 하는 과정을 통해 내부의 행동의 원칙이 새워지는 경험은 그것으로도 '권력을 가진 사람의 지시로 인한 합의'를 뛰어넘는 공동체 구성원간의 올바른 관계를 만드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5)올바른 관계형성의 방법 모색

우리가 형성해야하는 관계는 각자의 '성별, 소득수준, 출신지, 외모'등의 '자원'으로부터가 아닌 '삶에 대한 진지한 드러내기'에서부터 시작하여야한다.

따라서 처음부터 일대 다수의 위축되기쉬운 상황속에서 '쇼'식으로 이루어지는 자기소개가 아닌 일대일의 대화가 상대방을 바꾸어가며 이루어지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모색해 보아야한다.

첫 만남의 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새터 게임에 있어서도 가학적 상황의 연출을 통해 진행되는 게임의 형태를 벗어나야한다. 완성된 대안의 형태는 앞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이루어져 하겠지만 '인생 곡선그리기 게임'등의 예나 일부 반등에서 진행되는 몇 가지 새로운 시도들의 예를 보듯이 충분한 내부고민이 있으면 얼마든지 대안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들도 성별 권력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한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내부합의를 통해 만들어도 구성원간에 성인지적 고민이 싹트지 않으면 프로그램의 취지를 살릴 수 없을뿐더러 또 다른 성폭력을 유발하는 계임이 되기 십상이다. 예를 들어 '인생 곡선그리기'에서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성경험으로 두고 성적유혹을 위해 게임을 진행하는 경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회가 새터나 오리엔테이션을 계획하고 만들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매년해오는 학생회 행사를 위해 반 공동체 안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기초적 환경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

새터에서 좀더 편안하게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 진진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새터 준비과정에 있어서 각단위내에서 '개인간의 권력차이(특히 성별 권력차이)에 따른 폭력적 상황'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한다.

또한 오리엔테이션때의 '불편함'이 새터 불참의 주요원인중의 하나임을 명심해야한다. 첫 만남인 오리엔테이션 자리에 개인에게 있어서는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요소들이 있으며 (강제로 술을 마시게 강요하는 등) 이러한 경험이 있을 때는 2박3일간 밀집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새터에 참가하고 싶지 않게 된다.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온 새터의 모습이 상당수 참가자들에게 '불편한'공간이 되어왔음을 인지하여야한다. 대학생활의 첫 시작을 개인에게 '불편함, 폭력적임'이 아닌 '즐거움'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들의 공동체 내부에서 많은 고민들이 필요하고 이러한 고민들을 바탕으로 발전적 관계 형성을 모색해볼 때이다.

학내 反성폭력 운동과 자치규약의 의미

발제자 : 들레 (17대 총여학생회)

反성폭력 자치규약의 시작 및 의의

90년대 후반부터 이어져온 자치규약 운동은 몇 년에 걸쳐 대학 내 反성폭력 운동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아 왔다. 초기의 자치규약 제정 운동은 학생자치권을 주장하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공동체 내의 질서를 고민하고 세워나가는 과정을 갖는다는 명분 아래 진행된 것이었다. 따라서 성폭력 자치규약은, 공동체 내의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성폭력 문제가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의의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새터反성폭력내규는 새터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를 도움으로써 성폭력 문제를 공동체에서 함께 논의하여 해결해나갈 수 있는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¹⁾

광역학부제로 인한 학내 공동체의 성격 변화로 인해 '학생자치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줄어든 이후에도, 反성폭력 자치규약이나 새터내규는 새터 및 과/반 모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폭력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함으로써 성폭력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²⁾ 또한 새터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反성폭력' 교양을 받아야한다는 약속은, 그리 실효성 있게 지켜지지는 않았지만 학생회 단위를 통한 反성폭력 운동이 계속될 수 있게 해 주었다. 다른 범죄와 달리 성폭력에 대해서 대학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예방교육을 받아야한다는 것은, 성폭력에 대한 공동체의 인식 수준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에 대한 일상적인 통념, 소위 말하는 '보편적인' 생각들은 이미 남성의 경험의 틀 안에서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에 대한 의무 조항이 포함된 새터내규는 학내 공동체 역시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었다.

아직은 어렵지만 한 학내 성폭력 예방

새터내규의 제정, 개정을 통과시킨 확대운영위원회가 학내 공동체의 남성중심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새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내규를 전달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로 남곤 했다. 성폭력 사건이 연세대 안에서 엄연히 일어나고 있음을 보이고, 성폭력 개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시했던 사례들은 성폭력의 개념을 이해하지 않으려는 몇몇 새터 참여자들에게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켰다. 또한 이미 성별화 되어있는 성에 대한 관념과 성폭력이 발생하는 상황의 맥락을 일일이 조항으로 설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탓에, 내규 자체가 성폭력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기반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피해야할 행동의 목록의 의미만을 갖는 경우도 많았다. 사실 자치규약의 적용 대상이 되는 학내 모든 구성원들이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성별화된 섹슈얼리티에 대한 여성주의적 인식을 가지고 있기를 기대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그 결과 공동체가 내부의 성폭력 문제를 끌어안고 내규를 기반으로 논의

1) <연세에는 '새터 반성폭력내규'가 있다구? 그게 뭐야?> 2000년 연성투연 새터 자료집

2)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사회대공동체 Beyond가 발간한 두 개의 자치규약 자료집은 게임과 술마시기에 있어서 여성의 이중기준, 성적농담, 흡연 문제 등 공동체에서 흔히 발생하는 성폭력적 문화를 매우 구체적으로 짚어내고 있으며, 2000년에 제정된 새터내규 역시 성폭력 관련 조항마다 연대에서 발생한 몇 가지씩의 예를 함께 실어놓았다.

확장하기 보다는, 여운단위와 여성주체들이 '이 정도는 정말 명백하게 성폭력이니 제발 삼가라'고 호소하는 지경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사례를 들어가며 조목조목 짚어주는 내규는 성폭력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부족 때문에 그 의도와 달리 공동체 안에서 '이것도 성폭력이나'는 등 성폭력에 대한 행위 중심적인 반박과 회화화에 부딪히게 되었다. 연성부연³⁾, 여연자연⁴⁾ 등 학내 공동체들의 연대모임이 내규 전문이 쓰인 포스터를 제작하고, 자료집을 통해 학내 반성폭력 운동 과정의 고민을 소개하고 성폭력에 대한 편견을 비판해왔으나, 이러한 역효과를 방지하기엔 충분치 않았다. 모임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성폭력 예방교육도 학생들이 직접 스스로의 편견을 돌아보고 상대방의 성(Gender)에 대한 이해력을 점검하는 시간이 아닌 내규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시간에 그치곤 했다.

이렇듯 학내 공동체에서 성폭력 예방과 사건 지원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새터내규의 적용기간이 OT부터 새터까지임에도 불구하고, 반성폭력 교양을 버젓이 OT 프로그램에서 빼놓는 단대조차 있으며, 마련한다 하더라도 학내 성폭력 상담실이나 새터내규 관련 모임에서 짜놓은 내용이 전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대별로 구성원의 성비나 놀이문화에 따라 다른 내용들이 전달되어야 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실제로 내용을 준비하는 단위는 거의 없다. 또한 새터에서 반성폭력 교양을 할 때도 첫 날 저녁 프로그램에서 교양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새터 장소로 가는 동안이나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고 조이름과 구호 등을 정할 때의 성폭력은 여전히 예방이 잘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그저 '고민이 부족하다'는 말로 표현하기엔 너무나 심란할 뿐이다.

성폭력 사건처리를 위한 학생단위의 과제

예전보다 성폭력 사건 횟수가 줄었다는 말을 꽤 듣게 된다. '이제 더 이상 새터내규는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말도 간혹 들린다. 그러나 성폭력 사건들은 여전히 발생하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알려지지 않고, 잘 '해결'된 사례도 보이지 않는다. 성폭력 사건의 대부분이 성폭력상담실을 통해 처리되면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은 더 용이한 부분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학생 단위가 갖는 책임이 더욱 소홀해지는 느낌이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대면하여 정황을 조사하고 처벌을 결정하는 것만이 아닌, 공동체 내부의 2차 가해를 막고 피해자의 원활한 공동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은 여전히 학생 단위의 몫이다. 성폭력사건 처리과정에서 공동체가 피해자의 경험과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사건이 처리된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공동체에서 멀어지는 등의 상황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사건 처리의 전 과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가능한 지원에 대한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야 가능한 것이다.

또한 사건 지원이 제대로 되었든 되지 않았든지 간에 접수된 신고 사례들을 이후의 사건 예방을 위해 공개하거나 다른 사건 지원을 위한 자료로 남길 의무 역시 잘 이행되지 않는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보다는 '혹시나 우리 단대 새터에서 나쁜 일이 생기지

3) '연세 성폭력 뿌리뽑기 연대회의'의 줄임말로, 2003년에서 2004년까지 각 단과대 여성주체들과 총여학생회가 함께 학내 반성폭력 운동을 고안했던 연대 테이블.

4)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연세자치단위연대의 줄임말로, 단대학생회 연대체였던 연성부연에서 과/반, 동아리까지 참여대상을 확대한 테이블로 2005년부터 활동하고 있다.

는 않을까'라는 조바심이 더 커져버린 것이다. 물론 그 조바심은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막상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는 '우리 단대' 일이나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 폐쇄적인 공동체 의식에 그치고 마는 경우가 허다하다. 결국 피해자의 주체적인 치유를 돕고 공동체의 인식을 조금이라도 바꿔나가는 '사건 해결'의 과정을 향한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관계맺기의 전제가 되는 反성폭력

98년 몇몇 단대의 자치규약에 이어 2000년에 제정된 새터내규도 어느새 2차 개정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각 구성원들이 관계를 맺기 시작할 때부터 드러나는 성폭력적인 문화에 대한 학내 공동체 스스로의 고민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고민들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내용의 자치규약도 그저 여성 문제에 관심을 가진 몇몇 이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거나 자주 발생하는 몇몇 성폭력 행위들을 단순히 금지하는 데 머무를 수 밖에 없다. 이제 새터에서, 과방에서, 대동제에서, 강의실에서, 서로가 살아온 과정을 이해하는 적극적인 노력 없이 같은 대학에 소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체'로 묶이는 것이 가져오는 어려움에 대해 섬세하게 살펴보자. 관계맺기를 위한 약속으로써의 '反성폭력'이 결코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는 것을 금세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反성폭력 자치규약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 여전히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사회에서, 어떤 형태의 관계에서든지 필요한 약속들을 제시하는 하나의 방식일 뿐이다. '공동체로 함께 살기'를 주장한다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서로 다른 몸의 역사를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이 함께 모여 무언가를 이루려 한다면, 당연히 서로의 경험에 대해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反성폭력'은 여성의 경험을 드러내고 여성이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화두이며, 성폭력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목소리들은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채로 학내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 이제 학내 反성폭력 운동은 자치규약으로 가능한 부분들을 이루어나감과 동시에, 反성폭력 운동의 고민 지점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내고 확장할 필요가 있다. 자치규약이 담고 있는 고민을 시작으로 성폭력에 대한 여성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드러나고 힘을 받을 수 있는 학내 공동체를 기대해 본다.